

의안번호	제 112 호
의결 연월일	2007년 4월 24일 (제 259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 의 자	이필용의원 외 13인
발의연월일	2007년 4월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안 번호	112
----------	-----

요구연월일 : 2007년 4월 20일

요 구 자 : 이필용 의원 외 13인

## 1.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6,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2. 조사목적

민선 4기 출범 이후 복지여성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임용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충청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지사와 적·간접적으로 정치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임용되는 등  
일련의 인사가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바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와같은 충청북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의회차원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발언(2007.4.16. 이필용의원)을 통해 정당하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제·감시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도정을 흔들고 있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매도한다” 등의 표현으로 의회가 아닌 외부에서 기자회견의 형태로 반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음.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는 충청북도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도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임

###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 가. 충청북도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규명
- 나.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규명
- 다. 도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규명
- 라. 기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4. 조사 시행위원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함.

수 신 : 충청북도의회의장

제 목 : 충청북도 및 출자 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  
보은 낙하산 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수정안

위의 수정안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충청북도 및 출자 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  
보은 낙하산 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수정안 3부. 끝.

발 의 자 (인)

외 인

붙임 : 찬성자서명 별첨